

해설

순결한 사랑의 봉인

1788년, 베르나르댕 드 생피에르는 그의 『자연연구』 4권에 “일종의 목가”라는 수식과 함께 짧은 소설 한 편을 추가한다.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투박하고 감상적인 필치와 순결에 대한 예찬 등으로 말미암아 다소 고풍스럽게 보일지도 모르는 이 이야기는, 프랑스에서 당시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반향과 함께 독자 대중을 사로잡았고, 이듬해 단독으로 재출간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. 이러한 성공은 다음 세기로 이어져, 삽화를 곁들인 호화 장정판뿐 아니라 판화, 접시, 자수 등 소설 속 장면을 모티프로 한 각종 상품의 제작으로 이어졌고, 이내 『폴과 비르지니』는 일종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. 작품은 희곡, 발레, 오페라 등으로 각색되면서 더 많은 대중과 만났으며, 샤토브리앙에서부터 발자크, 플로베르에 이르기까지, 작품에 애정을 아끼지 않